

서울·상주 어르신들 '정겨운 만남'

10월 19일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권) 경복 상주시 하서면 어르신 43명이 복지관을 찾았다. 서울의 정겨운 가을 하늘이 먼저 어르신들을 반겼다. 하늘이아 상주가 더 깨끗하겠지만 서울 하늘도 가을빛을 받아 기분 좋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상주 어르신들은 종로노인복지관에서 마련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징검다리'에 참여하고자 서울까지 올라왔다. 고속버스 3시간 거리. 결코 가깝지 않지만 하서면 어르신들은 "마실 나온 셈 처럼 되지"라며 허허 웃는다.

어르신들은 먼저 종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다. 멀리서 온 이도, 손을 맞은 이도 서로 반갑다.

"우리 친구 왔네! 잘 왔네, 잘 왔어!"

유난히 반가워하는 종로 김성옥(67) 어르신과 하서면 강고지(66) 어르신.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뜰을 모른다.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닌 듯한 두 사람. 알고 보니 10월 1일 종로 어르신 80명이 먼저 하서면에 내려가 농촌 체험을 했다. 고구마도 캐고, 포도도 나눠먹으며 두 지역 어르신들끼리 친구하기로 했다. 멀리서 벗이 오니 어찌 기쁘지 않을까. "상주 갔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경기도 좋지, 사람도 좋지 상주에 완전 반했더니깐요."

하서면 어르신들은 먼저 복지관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시설을 살펴봤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올해 3월 개관식을 갖고 서비스를 시작한 최신식 복지관이다. 그러나 시설도 좋고 깨끗하다. 권석산(71) 어르신은 "우리 동네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오래된 동네 노인정과는 비교도 못하겠더라며 손까지 내졌다.

종로노인복지관 '都·農교류 프로그램' 현장



어르신들 오세요! 경복 상주시 하서면 어르신 43명이 10월 19일 서울 종로노인복지관을 찾았다. 어르신들은 서울 어르신들과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넘는 우정을 나눴다.

어떤 어르신들은 관장 정권 스님의 방을 구경하면서 "아이고, 스님 여기서 사시나" "밥은 끓여줍스는지 모르겠다"며 애정 어린 말을 주고받는다. 어르신들은 스님이 관장실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안도했다.

맑은 가을 하늘을 보기 위해 복지관 밖을 나섰다. 종로노인복지관 옆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인 이화장이 있다.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추억이 아스

라이 남아있다. 그가 좋고 싫고를 떠나 젊었을 때의 기억이 자연스레 떠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화장의 풍경은 어르신들에게 남았다.

훌륭한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도, 이화장도 있는 서울이 좋다고는 하지만 역시 집에 비할까. 하서면 어르신들의 '내 고장' 자부심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 포도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어요. 상주 곳값 유명한 건 다 아시죠? 쌀은 저능

약으로 농사지어서 정말 최고예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자식 같은 농산물들을 자랑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흐뭇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하서면을 직접 가본 종로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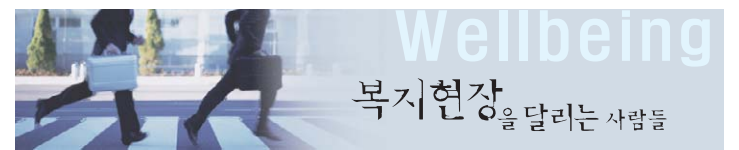
이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온 상주시 의회 윤홍섭 의원은 "상주는 해발 330m지대라 고랭지 농업에 적합한 농촌복합도시"라며 "이번 도농결연 사업은 어르신들 간의 문화교류는 물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르신들끼리 자연스레 "작가래 한 번 해보자"는 말이 나온다. 하서면 어르신들이 정성껏 키운 유기농 과일·채소·곡식이 제대로 대우받고 서울 어르신들은 싸게 좋은 물건을 사게 되니 참 좋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치환 입장을 바로 보는 것이 '징검다리'의 진정한 의미일 터. 어쩌면 도시와 농촌 어르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만 주어진다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관장 정권 스님은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종로 어르신과 하서면 어르신들 사이에 우애가 싹트길 바라며 향후 지속적인 도농교류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오랜만에 나온 서울 내들이에 상주 어르신들도 설레었지만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멀리서 온 손님들이 반겼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징검다리'라는 이름처럼 서로를 이어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② 서울노인복지센터 이명희 총괄부장

"불교복지 인재 양성 힘쓸 것"

사회복지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모양이다. 전공도 경력도 상관없다. 어느 순간 '사랑'과 함께 살기 위해 선택한 길 위에서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겼다는 복지현장을 달리는 사람. 그는 바로 이명희 총괄부장(45·사진)이다.

이 부장이 일하는 곳은 하루에 어르신 2000명이 이용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임민다).

"제가 이런 큰 시설에서 노인복지를 하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어. 인연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대불원 23기 여성부장출신의 이 부장은 사실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했다. 사서자격증도 취득했지만 졸업 후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시민사회활동에 뛰어들었다. 여기까지 들어도 범상치 않다.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그저 '자격증' 때문이었다. 이 부장은 "지인들과 아동



만 '열린 구조'의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만든 장본인이 된 이 부장. 시민사회활동가의 사회복지사 변신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다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아마 노인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상관으로서의 이들과 아동

상당 소를 세우려 대학원에 갔다가 사회복지에 빠져들었다"고 회고한다. 시민사회활동도, 사회복지도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기본의미는 같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고민은 대학원 현장실습 때 생겼다. 개신교 시설에서 '나도 내 신념에 따라 불교사회복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만드는 꿈은 거기서부터 뿌리내렸다.

원을 세우고 나니 길이 보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와의 인연은 노숙인쉼터 '보현의 집'에 근무하던 2001년에 시작됐다. 그해 3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수탁하고 시설 파견근무 요청을 해온 것이다.

"당시 시설세팅 문제로 하루 3번씩 회의했어. 열린 공간을 꾸며 어르신들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 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죠."

여타 노인복지관에서 볼 수 없었던

부장은 어릴 때 모습이 세우려 대학원에 갔다가 사회적인 상관이

이러 평한다. "복지사로 일할 때는 스스로 엄격해지려 합니다. 우리시설은 공적 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도덕과 질서가 중요하죠."

긴 세월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 온 그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불교사회복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센터에서 해마다 연등행사를 하고 명상 등의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는 것도 불교사회복지 터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동참할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 '불교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이 부장에게 가장 큰 화두다.

바쁘게 살았지만 노인복지, 불교사회복지의 길 위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적 없다는 이명희 부장. 그는 그저 소박하게, 복지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한다. "되직하면 보모를 하고 싶어요. 성장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 정말 뿌듯하겠죠?"

글·사진·김강진 기자

복지계 단신

◆서울 옥수복지관=10월 31일 오후 12시 30분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강좌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를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최근 노인에게 대한 건강식품 및 건강관련 용품 판매 등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보상 등 대처법도 알려줄 예정이다.(02)2282-1100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산하 서울 해명보육원=11월 3일 행복나눔 일일호프 및 바자회를 연다. 지역주민 행복나눔 콘서트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다.(02)802-0358

◆서울 광진노인복지관=10월 2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다도교육 '휴&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 자아각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02)466-6242

조계종 '호스피스 양성' 나섰다

11월 13일부터 '제1기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정념)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에 적극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1월 13일부터 실시하는 '제1기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불교사회복지 영역을 한층 더 넓힐 계획이다.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죽음은 자연스런 삶의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심적·육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불교호스피스는 죽음후의 세계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도록 불교적 내세관을 전

달해주고, 환자와 봉사자 간의 신뢰를 쌓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번 교육은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호스피스 교육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호스피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몇몇 사찰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반적인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죽음을 앞둔 불자들이 타종교로 개종하거나, 남은 가족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상황도 속속 벌어지고 있다.

이번 불교호스피스 교육의 시작으로 불교계 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확산은 물론 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각 강원법당들의 협력으로 불교봉사활동의 저변을 넓히고 불교의 대사회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호스피스 교육은 11월 13일 '호스피스'의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 '의료봉사 및 질병에 대한 이해와 관리', '신체적 관리', '대체요법', '의사소통 기법영역관리', '임종관리', '가족관리' 등의 커리큘럼과 체험,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화·목요일마다 총 12회, 130시간이다. 선착순 50명 모집이며 사회복지재단(02-723-5101)에서 전화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김강진 기자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16명의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에게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도봉 합장
(한국심마니협회 강릉시지부 정회원 - 회원번호 0403)

연락처 : 017-377-0464, 02)886-8655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871-34번지(서울 포교원)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232-1번지

산삼이란?

- 천종(진종)산삼(天種, 眞種)
고산지대의 식물의 특성에 의하여 알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자란것으로 뇌두는 가늘고 싹대 역시 작고 가늘며, 잎수와 가지 숫자도 적다. 열매 또한 작으며 숫자가 적다. 뇌두가 가늘고 길며 약용에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에 살아 안붙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0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란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칼로자를 못하며, 제일 컷바야 1년 2-3년 정도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종(진종)산삼이란 환으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 최고의 식물이란 것이다.
- 지중산삼(地種)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씨

종이 한단계 진화하며 야생장뇌에서 1-2대 지 난것이 지중산삼이며, 뇌두의 굵기가 진종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긴 형태도 중간이다.

- 인종, 야생장뇌 산삼(人種)
야생장뇌만 재배장뇌씨가 세대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이 한단계 진화하며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뇌두가 두껍고 미에 살아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재워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중산삼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러나 천종(진종), 지중,야생장뇌의 어이에 속하는나는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뇌두가 같으면 인종은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도일때 천종(진종)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중산삼보다 크기가 작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범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으대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하 · 김기현 · 김택선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하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